

'새 장난감 빌려가세요'

순창 어린이장난감도서관, 87종 225점 신규 구매... 내일부터 대여

순창군 어린이장난감도서관에서 오는 16일부터 새롭게 구매한 장난감 대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새롭게 구매한 장난감은 87종 225점으로 기존에 보유한 장난감까지 합하면 총 442종에 1213점을 보유하게 됐다.

값비싼 장난감으로 인해 경제적 비용부담과, 사취도 금방 싫증내는 아이들 특성으로 육아환경 개선을 위해 장난감 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군은 지난 2018년 1월 정식으로 어린이장난감도서관을 개관했다.

현재 218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회비 2만원으로 1년간 이용 가능해 영유아를 둔 부모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어린이장난감도서관이 읍에 위치해 대여가 불편한 면 단위 회원을 위해 면 사무소까지 배달서비스도 시행했다.

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4월부터는 집 앞까지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행하며 영유아를 둔 부모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공간이 됐다.

회원가입도 순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록을 둔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면 가능하고 어린이집들도 회원이 가능해 장난감 대여로 운영비 감소와 함께 아이들 보육환경 개선에도 일조하고 있다.

특히 3자녀이상 가구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인(1~3급) 등은



순창군 어린이장난감도서관에서 오는 16일부터 새롭게 구매한 장난감 대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연회비가 면제돼, 다자녀가구에 경제적 혜택은 물론 소외계층에게는 이용 부담을 줄여 군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대여기간도 2주간으로 아이들이 장난감에 싫증을 낼 만하기 전에 새로운 장난감으로 가져다 줄 수 있어 아이나 학부모 모두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매주 월요일마다 휴관하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용이 가능해 맞벌이 부모들에게 활용도가 더욱 높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장난감 도서관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어린이장난감도서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sctoy.co.kr>)를 참고하거나 전화(063-650-1685)로 문의의 가능하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청소년 문화의집' 오픈

교육전담 봉황인재학당·문화전담 시설 확충 요리실습·댄스·포켓볼, 영상제작실 등 갖춰

임실군이 지역 청소년들의 복합 문화공간인 '청소년 문화의 집'의 문을 활짝 열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관내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관내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될 전망이다.

군은 12일 심 민 군수와 청소년,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실 청소년문화의집' 개관식을 가졌다.

'우리의 꿈을 향해 Go! Go! Go!... 더 재밌고 더 즐기고 더 신나고!'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개관식은 청소년 댄스 등 식전공연, 감사패 전달, 테이프 커팅식, 청소년 어울림 마당, 청소년 진로체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임실 청소년문화의 집은 임실을 운수로 33·50번지에 자리 잡았으며, 총면적 1,540㎡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총 예산 42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이곳은 요리실습실과 댄스연습실, 노래방, 포켓볼, 영상제작실, 보드게임, 청소년카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과후 아카데미실 등으로 갖춰졌다.

관내 청소년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오는 8월부터는 청소년이 주도하는 동아리활동과 교육 문화 프로그램이 개설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아쿠아페스티벌 물놀이장 20일 개장

다음달 18일까지 임실치즈테마파크

임실군의 대표적 여름축제인 '아쿠아페스티벌'이 20일부터 약 한 달간에 걸쳐 개최된다.

올해부터 아쿠아페스티벌은 종전 5일간에서 28일간으로 대폭 확대되어 휴가철과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 등이 실컷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됐다.

군은 20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2019 임실치즈테마파크 아쿠아페스티벌' 물놀이장을 개장한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아쿠아페스티벌은 시군별 매력적인 관광지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전라북도가 직접 추진하는 1시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행사다.

임실군 대표관광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여름철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야외물놀이 행사를 마련, 가족단위 등 관광객들에게 무더위를 잊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군은 지난해 열린 축제에서 기대 이상의 방문객이 찾아 올해부터는 더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규모를 확대하고 운영기간도 연장했다.

주요시설로는 메인풀과 슬라이드, 수상축구풀, 유아슬라이드풀 등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이용객들을 위한 쉼터,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준비했다.

20일 개장식에는 밴드공연과 인형극, 마술, 뽀에로, 팝페라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며, 주말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공연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유료입장으로 입장료는 5천원이지만, 입장시 교환권(3천원)이 제공됨에 따라 일반인의 부담은 2000원에 불과하다.

임실군민의 경우 4천원의 교환권이 제공되어, 단 돈 1000원이면 온종일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교환권은 현금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행사장 내부 매점 및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시설에서 행사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다.

심 민 군수는 "이번 아쿠아페스티벌은 임실치즈테마파크를 찾는 많은 방문객들에게 시원하고 즐거운 여름을 선물하기 위한 여름철 축제"라며 "개장 전까지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빈틈없이 준비하여 아쿠아페스티벌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큰 만족을 안겨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민은 물론 인근 도시민과 타지역에서도 많은 방문객이 찾는다면,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 여성농업인 작업 편의장비 지원

남원시는 농촌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농업분야의 작업 역할이 갈수록 증대되어 가고 있음에 따라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작업대 지원에 나섰다.

이번에 지원되는 작업대는 2019년 시범 사업으로 총 29대의 물량으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다양한 농 작업 상황에 맞추어 사용 할 수 있는 장비이다.

지원 대상 농가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업 여성농업인으로 가구당 농지 소유면적 5ha 미만으로, 대당 사업비는 50만원(보조40만원, 자부담 10만원)이다.

농업경영인 남원시여성연합회 정점순 회장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작업 편의장비 지원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농업인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요천에 쏘가리 치어 방류

남원시는 지난 11일 요천 승사교 주변에서 공무원 및 내수면 어업계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토종 민물고기 방류 행사의 일환으로 쏘가리 치어 5000마리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쏘가리는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 민물고기 시험장에서 자연산 쏘가리에서 인공 채란, 수정란을 부화시켜 1개월 정도 사육한 전장 3cm 이상 성장한 쏘가리 치어로 방류 2~3년 후에는 남원시 어족자원 증대와 수생태계 조성 및 농가 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쏘가리는 토속어종으로서 배스나 블루길과 천적관계에 있어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의 퇴치에 도움을 주며, 횡감과 매운탕으로 즐겨 찾는 고급 어종으로 민물고기 중 판매가격이 높아 농(어)업인들의 소득원 역할을 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지역관광 브랜딩 청춘PD 2기 모집

남원시가 품격있는 문화관광 도시로의 완성을 위해 관광브랜딩에 함께할 의지와 감각있는 제2기 청춘PD 6명(기획, 홍보, 편집 분야 각 2명)을 15일부터 19일까지(5일간) 모집한다.

청춘PD 참여자격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만18세부터 39세까지의 비경제활동 청년으로, 근무조건과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시의 청춘PD는 청년들의 트렌디한 시각과 젊은 감각으로 지역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재포장해 새로운 관광매력을 창출한다는 복안으로, 지역민과 행정의 중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년 관광전문가로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광도시 남원에 부족한 청년 문화기획자를 양성해 관광자원 개발 및 정책결정에 젊은 민간참여를 활성화 하고, 관련분야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남원시가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에 참여해 선정된 사업이다.

1기 청춘PD는 춘향제 및 남원에춘향상설프로그램 기획·홍보, 온라인 관광홍보 플랫폼 구축 등의 활동을 통해 관광상품화의 패러다임을 오픈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남원 관광 브랜딩을 위해 활동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1기 활동성과를 기반으로 멘토링시스템을 운영해 2기는 보다 빠르게 관광자원 홍보와 상품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환주 시장은 "청년들이 가진 참신한 아이디어가 남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원 발전을 위해 청년들을 주제로 살기 좋은 남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